



최근 수급 동향 Check

1. 최근 외국인 수급의 특징점

- 11월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6조원 이상의 대규모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종목 별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통해 개별 모멘텀 플레이 보다 인덱스 매수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코스닥 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언택트 컨셉 관련 모멘텀이 존재했던 종목들에 대한 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참고

2. 하락 베팅이 강해지고 있는 국내 개인 수급

- 외국인과 반대로 개인은 강한 매도세를 형성하고 있음. 매수 상위 종목들도 시장의 하락에 대한 베팅을 진행
- 경험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인버스 ETF가 시장 하락의 시그널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개인의 매도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예탁금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증시에서의 자금 이탈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

3. 연말, 연초 계절성도 한번쯤 체크해 볼 시기

- 한국 증시는 연말로 가면서 개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는 연말 계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평균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초 수익률이 개선되는 연초 효과 역시도 확인되고 있음
- 평균을 맹신하기 보다는 당시 상황이 더 중요하겠지만 제반 상황들을 보더라도 내년 1분기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



주식시장 투자전략

1. 최근 외국인 수급의 특징점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 환율 측면에서의 우호적인 캐리 여건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우위의 움직임을 유지해 왔던 외국인이지만 불확실성의 완화(변동성 지수의 하락)와 함께 11월 들어 강한 매수세를 형성하고 있다. 23일 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은 +6.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외국인의 매수 종목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LG화학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으며, 지수 정방향 ETF도 매수 종목 상위에 올라있다.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 관점 보다 지수 전반에 대한 매수세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한편,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매도 종목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11월 중 외국인 코스닥 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제넥신(백신), 씨젠(진단), 알서포트(원격사무), NHN사이버결제(비대면결제) 등이 포진하고 있다. 괄호 안에 표시해 둔 바와 같이 ‘코로나 시대와 언택트 컨셉’이라는 관점 하에 관심도가 높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들의 시각이 적어도 언택트에 대한 집중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차트1] 11월 외국인 코스피 매수/매도 종목. 매수 종목들을 보면 인덱스 전반에 대한 매수로 간주할 수 있을 듯

순매도(억원)		순매수(억원)	
기업	금액	기업	금액
삼성전자우	-1,705	삼성전자	20,331
금호석유	-1,309	LG화학	9,754
NAVER	-904	SK하이닉스	8,892
롯데케미칼	-823	삼성SDI	3,157
기아차	-814	KODEX 200	2,668
SK텔레콤	-805	카카오	2,106
한국전력	-596	아모레퍼시픽	1,861
삼성화재	-589	삼성전기	1,146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 본 자료에 나온 주체별 순매수 통계는 11월 2~20일까지의 합산치

[차트2] 11월 외국인 코스닥 매수/매도 종목. 매도 종목을 보면 언택트 컨셉에 대한 노출도가 낮아지는 모습

순매도(억원)		순매수(억원)	
기업	금액	기업	금액
제넥신	-941	휴젤	428
씨젠	-534	셀트리온헬스케어	405
에이스테크	-157	에이치엘비	272
소마젠	-155	JYP Ent.	265
알서포트	-149	메드팩토	247
하이룩코리아	-145	카카오게임즈	246
바이넥스	-143	메지온	179
NHN 한국사이버결제	-134	고영	175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2. 하락 베팅이 강해지고 있는 국내 개인 수급

한편 개인들은 11월 강한 매수세를 보인 외국인과는 상반되는 강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국내 증시의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개인 자금들이 유출되는 모습이 달갑지만은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매수/매도 종목들의 현황을 보면 이 역시도 외국인들과 정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LG화학 등의 시가총액 상위주들과 정방향 ETF에 대한 매도가 큰 규모로 진행됐다. 반면,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월간 최대 매수 종목에 소위 곱버스라고 불리는 인버스 x2 ETF가 위치하고 있다. 그간 보유하고 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과 함께 지수의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유입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수급 상 중요도가 높아진 개인의 이 같은 움직임이 부담스러워 보이기에는 하지만, 적어도 경험적으로 개인의 인버스 매수가 지수 하락에 대한 유의미한 시그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수의 상승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 보인다. 더불어 개인들이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월간 매도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고객예탁금이 그 반대급부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자금이 시장에서 이탈하기 보다는 대기 매수 자금의 형태로 잔존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을 듯 하다.

[차트3] 11월 개인 순매수 종목 현황. 대규모 순매도 뿐만 아니라 매수 종목도 인버스 레버리지가 상위에 랭크

순매도(억원)		순매수(억원)	
기업	금액	기업	금액
삼성전자	-20,526	KODEX 200선물 인버스2X	5,847
SK하이닉스	-9,929	NAVER	5,776
LG화학	-8,889	삼성전자우	1,918
KODEX 레버리지	-5,359	대한항공	1,258
삼성SDI	-3,074	KODEX 인버스	1,138
아모레퍼시픽	-2,533	SK텔레콤	993
삼성바이오로직스	-2,236	LG전자	988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551	한화솔루션	797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대규모 매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탁금 수위를 보면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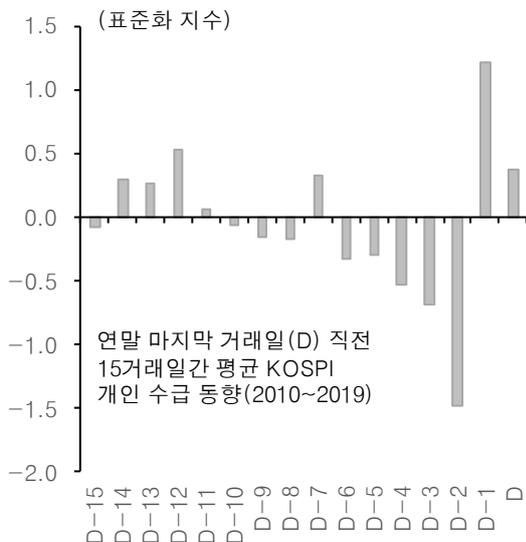


주식시장 투자전략

3. 연말, 연초 계절성도 한번쯤 체크해 볼 시기

연말에 항상 언급되는 이슈 한 가지가 계절성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증시의 경우 연말 세금 이슈나 배당 등과 관련된 수급상의 특이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말 코스피 시장에서 평균적인 개인들의 순매수 동향이다. 마지막 거래일 5~6 거래일 전부터 개인들의 매도 움직임이 강해지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연말이 가까워 지면서 개인들이 수급상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하다. 올해는 개인의 수급 비중이 예년에 비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움직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상황을 감안하면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보다는 적극성을 가져가는데 바람직해 보인다. 우측 그림과 같이 증시의 수익률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퍼포먼스가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하다. 사실 이 같은 특이성에 대한 맹신보다 해당 시점의 매크로 현황이나 유동성 여건 등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지만 당사 하우스 뷰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내년 1분기의 경우 극단적인 기저효과의 반작용, 주요 경제권 정책에 대한 기대 등이 각종 사이클 지표의 정상화를 이끌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론적으로 연말에 수급상의 이슈 등을 통해 변동성이 형성될 경우 보다 적극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판단이다.

[차트5] 최근 10년 간 연말 개인 수급 흐름을 보면, 연말로 가면서 매도 물량 출회가 나타나는 경향이 존재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그러나 연말 변동성 구간 이후 연초에는 평균적으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향도 존재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